멈출수 없는 제자훈련의 생명력

환경을 극복하며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대구 푸른초장교회**

방황이 계속될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가

CAL세미나 참석을 권유했다.

그냥 일반적인 부흥 세미나라 여기고

휴식도 하고 은혜도 받을 겸 참석했다.

그런데 그렇게 참석했던 세미나가

그의 목회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4월 26일, 대구 삼성교회(담임: 이정인 목사)에서는 지난 3월에 열린 59기 CAL세미나를 수료한 대구경북지역 목회자들의 세이레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의 취지는 CAL세미나 수료자들이 제자훈련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세이레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제자훈련 목회를 성공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례발표였다. 이 사례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은 제자훈련을 대구·경북지역이라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접목해나가야 할지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례발표자들 중에서도 참석자들에게 눈에 띄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준 목회자가 있었다. 바로 푸른초장교회 임종구 목사였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였기에 참석자들이 그토록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을까? 푸른초장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임종구 목사의 제자훈련 목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푸른초장교회 이야기

교회의 시작, 그것은 시련의 시작이었다

1996년 6월 20일, 총신대학교 신대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임종구 목사(당시 30세의 전도사) 가족과 고등학생 2명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푸른초장교회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예배당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어느 집사님이 빌려준 조그만 공간에 마련했다. 개척을 시작했다는 기쁨도 잠시, 임종구 전도사는 냉정한 현실에 계속 맞닥뜨려야 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 제대로 교회를 돌볼 수 없었다.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로는 교회 재정을 유지하기가 버거웠다. 더군다나 목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개척한 터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결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를 거쳐 1998년 10월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목사안수를 받았지만, 임종구 목사에게는 희망보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더 가깝게 느껴졌다. 직전에 터진 IMF 위기로 교회가 입주해 있던 상가가 부도로 경매되면서 예배당과 건물 옥상의 사택이 철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새로운 목회를 꿈꾸며 가슴 부풀어야 할 시기에 임종구 목사는 더 이상 빠져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우연한 참석이 필연적 섭리가 된 CAL세미나

그렇게 방황이 계속될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가 CAL세미나 참석을 권유했다. 그 당시만 해도 임 목사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냥 일반적인 부흥 세미나라 여기고 휴식도 하고 은혜도 받을 겸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참석했던 세미나가 그의 목회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세미나 첫날 저녁 옥한흠 목사의 광인론 강의를 들으면서 임 목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목회 패러다임의 대변환을 경험했다. 광인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기도실을 찾은 그는 그날 밤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눈물은 그동안의 목회에 대한 후회의 눈물과 목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또한 자신도 제자훈련에 한번 미쳐보겠다는 결단과 헌신의 눈물이기도 했다.

생명을 건 목회자에게 생명을 준 평신도들

세미나에 참석한 후 3개월 만인 1999년 4월, 임종구 목사는 과감하게 1기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남제자반 4명과 여제자반 3명으로 출발한 제자훈련이었다. 임 목사는 이 첫 번째 제자훈련 기간 동안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한다. 그런 임 목사의 열정과 헌신 속에서 훈련생들은 조금씩 인격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런 와중에 예상했던 위기가 터지기 시작했다. 건물 옥상에 있던 사택이 철거되었고, 입주한 상가건물에서는 나가달라는 정식 통보가 왔다. 당시 IMF 위기가 계속되고 있던 터라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위기에서 교회를 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자훈련을 받던 4명의 남자 성도들이었다. 그들은 지금의 푸른초장교회가 입주해 있는 상가 분양금을 마련했다. 그 당시 그들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금이었고, 어쩌면 자신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 "저는 훈련생들을 위해 생명을 걸었고, 그들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을 통해 임 목사가 처음 맛본 평신도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임

"저는 훈련생들을 위해
생명을 걸었고,
그들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자훈련을 통해
임 목사가 처음 맛본
평신도의 힘이었다.

임종구 목사
"지도자의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중요하다."

임종구 목사는 고강도의 제자훈련을 실시한다. 하지만 그가 훈련생들을 섬기는 모습 또한 고강도로 유명하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사역과 임종구 목사의 열정이 오늘의 푸른초장교회를 만들었다.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목사로 하여금 제자훈련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격려가 되었다. 지금의 푸른초장교회를 있게 한 그 4명의 성도들은 지금도 임 목사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이자,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의 건강이 교회의 성장을 이끌다

새 예배당에 입주했지만,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푸른초장교회 옆에는 이미 1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두 개나 있었다. 따라서 성도 수 10명 남짓한 조그만 상가 교회에는 누구도 선뜻 들어와 보려고 하지 않았다. 주위에서는 이제 얼마 못 가 교회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냉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 목사는 목회환경을 탓하기보다 목회본질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평신도들을 양육하는 데 진력했다. 이런 훈련목회와 양육목회가 주변 지역에 알려지면서, 건강한 교회를 찾던 성도들이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방문한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다. 푸른초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충실한 양육 프로그램, 참여와 변화가 있는 소그룹, 평신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사역,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담임목사의 열정 등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꾸준히 성장했고, 4년이 지난 지금 2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튼실한 교회로 자리잡았다. "정말 전도에 신경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양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해지면서 하나님이 성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임 목사의 겸손한 확신이었다.

푸른초장교회가 던지는 도전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모든 과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푸른초장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 8년간의 개척 과정에서 모든 것이 좋았을 리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했을 리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비평가의 입장보다는 학생의 입장에 서서 지난 8년간의 푸른초장교회 이야기가 주는 교훈들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다.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을 늘 점검하라

제자훈련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임종구 목사의 눈은 열정으로 빛난다. 그 열정은 제자훈련이 목회의 본질이라는 강력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시작했다가도 1, 2년 해보고는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헌신과 열정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임 목사 자신도 제자훈련을 2년 정도 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제자훈련 지도자 컨벤션에서 옥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벌써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5년은 해보고 나서 결과를 말해야겠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되었단다. 그리고 컨벤션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밤새도록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제자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임 목사의 말은 정확한 지적이다. 제자훈련은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자훈련하는 목회자는 자신의 확신을 점검하고 그 확신을 강화하는 기회들을 자주 가져야 한다. 국제제자훈련원의 교역자들과 상담을 하든지, CAL-Net 지역팀장을 찾아가든지, 제자훈련을 하는 다른 목회자들과의 모임을 갖든지 어떻게든 제자훈련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강도로 제자훈련을 하려면 고강도로 훈련생을 섬기라

임 목사의 제자훈련은 그의 표현대로 정말 하드 트레이닝이다. 예를 들어, 제자훈련생들은 일주일 동안 읽을 성경이 200쪽이나 된다. 일반적으로 제자훈련생들이 읽어야 할 40쪽의 무려 5배 분량이다. 이렇게 1년 동안 신구약을 3번 정도 통독하게 하는 것이 임 목사의 제자훈련 방식이다. 이렇듯 고강도의 훈련을 시킨다는 임 목사의 사례발표를 들은 목회자들은 "도대체 제자훈련을 임종구 목사 식으로 해야 옳으냐?"는 반론과 질문을 쏟아놓았다. 이에 대해 임 목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도 이것만이 옳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강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푸른초장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첫 세대 지도자는 이후 세대보다 훨씬 강한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고강도의 훈련을 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평이다. 임 목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훈련생들에게 요구하는 강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저는 훈련생들을 섬겼습니다. 어떨 때는 남제자반에서 한 사람당 10분 이상을 껴안고 눈물과 땀으로 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기도해줍니다. 또 훈련이 좀 힘들다 싶은 어느 날은 여제자반 훈련생들을 데리고 가까운 개울로 나가 물고기도 잡고 매운탕을 직접 끓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사랑하고 헌신하니까 훈련생들도 고강도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임 목사 자신의 평가처럼 그의 강도 높은 제자훈련이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제자훈련생들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제자훈련생들이 그런 목회자의 제자훈련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본보기임에 틀림없다.

최소한의 통제, 최대한의 자율

푸른초장교회에는 다양한 사역팀이 존재한다. 교회도서관팀, 시설팀, 화목전도단, 야곱의도시락팀(독거노인들과 재가장애인들에게 반찬 봉사), 민들레팀(소년소녀가장 봉사), 디자인팀, 바나바팀(정착사역), 인터넷팀, 주일식당세팅팀, 청봉팀(청소봉사), 설봉팀(설겆이봉사) 등이 그것이다. 임 목사에 따르면 이러한 사역팀들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지도자도 자발적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담임목사가 사역 영역을 제시하고 리더를 세우고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위에서 아래로'(top-down)식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자원하여 만든 '아래에서 위로'(bottom-up) 식의 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자율 모델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필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만들고, 자신의 은사대로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팀 이기주의나 경쟁주의에 빠져서 균형이나 조정, 협력이 어려워지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푸른초장교회의 사역팀들은 자율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임 목사는 이러한 자율적인 사역 방식을 더욱 장려함으로써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라는 교회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소그룹(small group)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여 작은 교회(small church)로까지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자율보다는 통제, 지원보다는 감독을 선호하는 목회자들이 귀담아들을 부분이다.

제자훈련의 멘토를 찾으라

임 목사는 인터뷰를 하는 내내 제자훈련을 시작하려는 목회자들에게는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멘토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시작도 못하거나 시작한 후에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는 제자훈련 신청서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는 체험학교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저에게 체험학교나 멘토가 있었다면 제가 겪은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려는 목회자에게는 함께 제자훈련을 하는 동료이든, 이미 제자훈련을 해온 선배이든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임 목사는 강조한다. "멘토링을 통해 왜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어떻게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며 제자훈련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 목사는 이제부터는 자신이 그런 멘토가 되어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목회자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 그는 '반석회'라는 개척 교회 목회자 모임에서 동료들과 함께 상호 멘토링(peer mentoring)을 실천하고 있다.

푸른초장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저는 당분간 교회건축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상가에 입주한 이 상태로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성장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조그만 상가에서 사역하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 대신 임종구 목사는 그동안 축적된 재정으로 안동과 경주지역에 개척교회를 건립하여 봉헌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임 목사에게서 건강한 교회를 향한 간절하고 순수한 열정을 보았다. 바로 거기에 푸른초장교회가 품고 있는 미래가 있었다.

〈송정헌 목사〉

대구 푸른초장교회 칼 프로파일 컨설팅 포인트

푸른초장교회에 던지는 도전

푸른초장교회를 취재하기 전,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임종구 목사와 성도들 30명을 대상으로 교회진단 설문조사(칼 프로파일)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푸른초장교회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건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앞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영역이 발견되었다. 다음에서는 푸른초장교회의 허락하에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제안한 컨설팅 포인트 중에서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목회자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라

푸른초장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담임목사가 개척 교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개척형 리더십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목회자는 기존에 자신이 관여하던 의사 결정과 사역 영역을 평신도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드로의 충고를 들었던 모세처럼, 일곱 집사에게 사역을 위임했던 초대 교회의 사도들처럼 자신들의 리더십 스타일을 위임형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척형 리더십에 익숙한 담임목사는 리더십 스타일을 개척형에서 위임형으로 바꾸는 데 종종 실패한다. 결국 그로 인해 목회자는 쉽게 탈진하고 평신도들은 봉사의 의지가 꺾이며 이것이 성장의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푸른초장교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역 영역에서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 결정의 영역에서는 지금보다 좀더 많은 부분을 평신도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었다. 놀라운 것은 임 목사가 이미 이러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프로파일의 진단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평신도 지도자들의 양과 질을 확보하라

푸른초장교회의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며, 앞으로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이 나왔다. 문제는 새신자들의 증가율을 소그룹 지도자들의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즉 교회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빠르면 순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몇몇 제자훈련반에서는 한 명의 순장이 너무 많은 순원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장 수급 대책이 제안되었다. 첫째로, 제자훈련생들의 인원을 수요 예측에 따라 조절하도록 권했다. 둘째로, 소그룹 지도자가 부족할 경우 훈련생들 중에서도 미리 소그룹 지도자를 임명하는 차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소그룹 지도자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제안했다. 첫째로, 소그룹 지도자들의 재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순장반이 매월 1회 모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주 1회로 늘리고 교육내용도 소그룹, 귀납적 성경공부, 리더십 등 균형을 유지하도록 권했다. 둘째로, 기존 소그룹 지도자들이 훈련생들을 1대 1로 멘토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권면했다. 소그룹 지도자들의 노하우를 공식적으로 훈련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예비지도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 역시 임 목사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기꺼이 목회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